

A Study on the Sokcho Lion Mask Play as a K-Folk Drama :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Its Origins and Transmission Patterns

Jang, Jung-young

Honorary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jjy1@gwnu.ac.kr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Sokcho Lion Mask Play,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Gangwon Province, transmitted by displaced communities from North Korea's South Hamgyong Province. It examines how this K-folk drama, preserved in Abai Village (Cheongho-dong), contributes to community identity and serves as a cultural lin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ethod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ieldwork, including performance observation and practitioner interviews, the study analyzes the play's structure, music, instruments, and dance forms. Ethnographic methods are used to understand its five-part, ten-scene composition and its transmission within the local community.

Conclusions The Sokcho Lion Mask Play functions as more than a folk performance—it is a medium for preserving displaced identity and fostering inter-Korean cultural continuity. Its sustained transmission reflects the role of intangible heritage in maintaining cultural identity across generations and regions.

Keywords Sokcho Lion Mask Play, K-Folk Drama, Intangible Heritage, Displaced Communities, Inter-Korean Culture, Cultural Identity

<https://www.ijkculture.com>, doi.org/10.23159/IJKC.2025.10.312.001

Received: Sep. 20, 2025 ; Reviewed: Oct. 10, 2025 ; Accepted: Oct. 20,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K-민속극으로서의 속초 사자놀이 연구 : 기원과 전승 양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장정룡

목 차

1. 사자놀이의 전승 현황
 2. 속초 사자놀이의 놀이 내용과 가면
 3. 속초 사자놀이의 연희 내용
 4. 속초 사자놀이의 연희 대본
 5. 속초 사자놀이의 음악과 춤사위
-
-

1. 사자놀이의 전승 현황

사자놀이는 속초, 북청지역 등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연희로서 속초사자놀이는 2019년 3월 8일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사자놀이는 사자희(獅子戲), 사자놀이 등으로 불리는데 1930년대 양양군에 속하였던 속초와 고성지역¹ 사자희 즉 사자놀이가 전승되었다는 보고가 있다.²

주지하듯이 속초는 함경남도 북청군민들이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살고 있는 지역이다. 속초시 청호동은 바로 함경남도 주민의 집단마을로서 일명 ‘아바이

1 주상훈(1990). 속초의 지명. 속초: 속초문화원. 15-16. “1914.3.1.부령(府令) 제111호로...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통합되어 도천면이 되었다. ... 1937.7.1.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10.1. 부령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 나뉘지머...”

2 村山智順(1941). 朝鮮의 郷土娛樂. 朝鮮: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264-269. 264쪽 고성 “獅子戲(사자노름), 269쪽 양양 獅子戲”

마을'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들의 민속문화가 지금도 전승되고 보존된다.³ 따라서 이곳은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최초 전승지이자 북청사자놀음이 지금도 속초문화로 정착되어 전승되고 있다.⁴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사자놀이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⁵

[고성] 사자희(獅子戲: 사자노름) 전승시기: 정월 중, 전승주체: 농민, 놀이법: 사자 가면은 대나무로 짜서 만든 틀에 종이를 바르고 얼굴을 그린다. 머리 부분과 몸체는 거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가늘고 길게 자른 종이를 풀로 많이 붙여서 털로 삼아, 사자의 형태를 만든다. 사자 가면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머리 부분, 다른 한 사람은 꼬리 부분을 계속 움직이며 걸어가면서 악대와 어울려 논다.

[양양] 사자희(獅子戲), 전승시기: 추경(秋頃), 전승주체: 소아(小兒)

조선총독부의 향토오락 자료는 1936년 각 도지사에게 명하여 각 지방 보통학교에서 수집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⁶ 이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사자놀음의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는데,⁷ 1950년대 북청사자놀음의 전파 이전에도 정월 중에 농민들에 의해서 사자놀이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행해지는 북한지역 사자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자머리는 대나무 틀에 종이를 붙여 만들며 사자가면에는 앞뒤로 두 명이 들어가서 악대와 함께 정월달에 어울려 노는 방식이다. 이 사자탈은 대부분 북방계 사자탈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 책자는 1924년부터 1941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에서

3 장정룡/김무림(1998).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 속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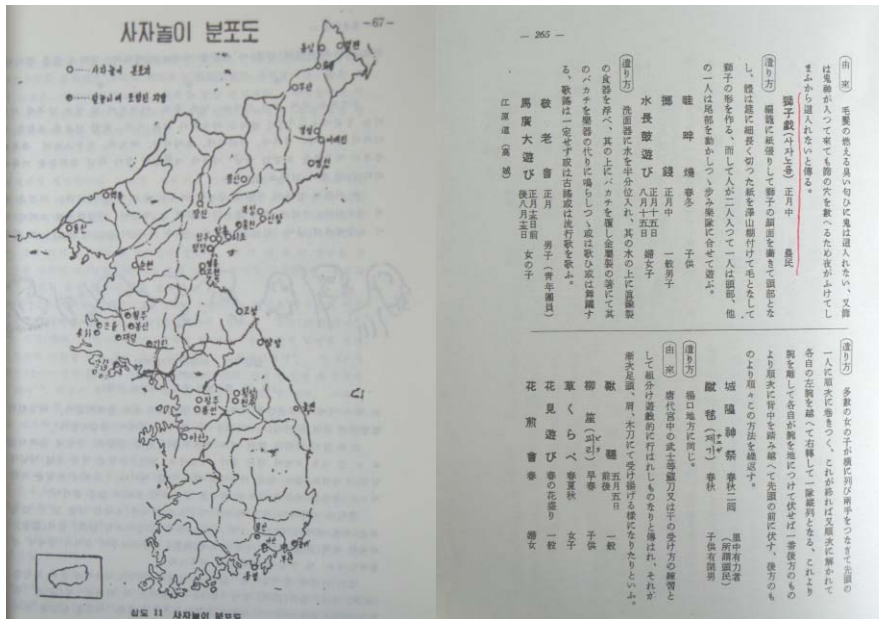
4 장정룡(2007). 속초 북청사자놀음. 속초문화, 23.

5 村山智順(1941). 264.

6 村山智順 編, 朴銓烈 譯(1992). 朝鮮의 郷土娛樂. 서울: 集文堂. 27. “이 책은 1936년 각 도지사에게 조회하여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향토오락을 조사, 정리한 자료이다. 조사는 각 지방의 보통학교에 의뢰하여 수집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향토오락의 성질상 분류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리하게 분류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엄격한 분류를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내용임에도 지방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놀이명은 각 지방의 고유놀이명을 밝혔다. 놀이의 한 요소를 이루는 노래는 한글로 조사된 경우는 한글로 실었다. 이는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로 인하여 이 책의 가치가 덜해짐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의 조회나 수집에는 동료이자 본청의 촉탁 오청 씨의 도움이 컸다. 분류, 편집, 교정 등을 위해 애써준 평천 씨와 권본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41년 무라야마 지준”

7 김일출(1958). 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67.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된 조사자료 전 47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다. 이 책의 간행 책임자인 촌산지순(일본명 무라야마 지순)은 동경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문서과 조사제이계 주임 겸 촉탁으로 재직하였고,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수, 부락제 등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놀이명은 약 6,400종이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놀이법이 설명된 항목은 1,300여 종이고 설명이 없는 경우는 5,100종에 달한다.⁸ 당시 향토오락에 대한 총체적 조사자료인 이 책자는 조선총독부가 전국 15개 시도, 22개 지방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자료적 가치는 존재한다. 아래 자료는 좌측은 우리나라 사자놀이 분포도이고 우측은 『조선의 향토오락』에 기술된 원문이다.



〈사진 1〉 사자놀이 분포도 및 〈조선의 향토오락〉

함경남도 이주민들이 정착한 속초지역은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월남한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러한 민족사적 비애와 남북한 분단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월남한 주민에 대한 본격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월남한 북한주민들을 칭하는 용어는 월남민, 피난민, 실향민 등이 있으나, ‘실향민’이라 표기하고 그들의 인구분포, 언어생활, 생활문화 등에 대한 생애사, 구술사, 정착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북청사자놀음의

8 村山智順 編, 朴銓烈 譯(1991). 30.

속초지역 현장조사⁹ 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¹⁰ 돈돌라리민요에 대해서도 고찰한 바 있다.¹¹

한국전쟁이후 함경남도 피난민의 집거촌인 속초시 청호동을 중심으로 북청사자놀음이 성행하였다. 본래 사자놀이는 속초 지역에서 전승되기도 했으나 본격적으로 연행된 것은 함경도 이주민들에 의하여 확대되었으며, 피난민들이 품고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온 이주민속(移住民俗)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행된 사자놀이가 남쪽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전승된 귀중한 사례이다.

북청사자놀음이 유명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서 사자놀이 하는데, 첫말이 그러하잖아요. 북청사자놀음. 그런데 내가 북청에 있으면서 내가 살던 고향이가 희안합니다.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토성이라는 데가 허허벌판입니다. 산으로 가자면 십키로씩 가야되지요. 벌판에 마을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나라 임금이 오백년 도읍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바다같이 너른데 성을 쌓았어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이 있는데, 일제 때 총독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성을 엄청나게 크게 쌓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가 들어서서 마을전체가 풀숲입니다. 거기 관장이 있는데 오백년 도읍지이므로 사자놀음을 거기서부터 기초가 돼서 북청사자놀음이다 하지요. 우리 고향에서 사자놀음터가 처음 발족해서 탄 부락에서도 하고, 참 멋있고 그래서 그걸 본 받아서 탄 부락에서 하고 탄 부락에서 하고, 그래서 북청사자놀음이란 말이 나왔지요. 원 말이 근본은 우리 토성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토성에 가면 돌로 만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나와요. 처음에 토성리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려서 보았는데 내가 서른 몇 살에 나왔으니, 일제 때는 허가 못해서 못했거든요. 일제 때는 시시한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허가 안내줘요. 그러니까 허가 하지 않으면 토성리에 사는 부락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가 특수하다든지 아니면 인재라 하는 분네들이 어떻게 지령으로서 그 사람들이 승인이 맥이게 되니까 허가를 내줘서 하지요. 그때 보름달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자놀음도 하고 그때 당시는 운동을 크게 하지요. 그래서 그대 사자놀음 하는 걸 이북에서도 많이 구경도 하고, 내가 십오년 이상 구경하구 나온 사람이니까. 사자

9 장정룡(2010). 속초 북청사자놀음 전승 실태 조사보고서. 속초: 속초문화원.

10 장정룡(2010). 속초 실향민 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 방안. 속초문화, 26. 94-125.

11 장정룡(2014).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속초문화, 30. 54-71.

놀음할 때에는 소나발이라구 그걸 보면 ‘뽕’하는 소리가 나지요. 우리가 들을 때는 소나발 그러는데요. 그리고 피리불구, 요만한 생황도 불구, 아마 중앙에는 우리 토성리 사람들이 사자놀음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물려받아하지마는 원 근본 임원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장정룡 조사: 김하륜, 남. 당시 84세, 교동, 1999.12.10)¹²

남북분단 이후 사자놀음의 변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의 남쪽 지역 원형은 속초지역에 보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함남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집거하고 있으며, 함경도 방언으로 진행되는 사자놀음이기 그 맛과 흥이 남다르다. 한반도 분단이후에 속초에 거주하는 함경남도 주민들이 북청도청을 만들고 사자놀이를 펼쳐보였다.

사자탈놀이와 관련하여 본다면 먼 옛날 우리민족은 사냥할 때 범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동물의 탈을 쓰고 짐승을 잡았다. 또한 전쟁 때 적을 위협하기 위해서 무서운 탈을 쓰고 나서기도 했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지증왕 13년) 신라의 하슬라군주 김이사부 장군은 동해중에 있는 우산국을 정복할 때 사자를 형상한 허수아비인 목우사자(木偶師子)를 배에 싣고 가서 그것으로써 섬사람들을 위압하였다고 기록에 전한다.

신라 초기 유적에서 나온 토기에는 거북과 닭의 탈을 쓴 탈꾼들이 춤추는 장면이 있으며 6세기 음악가인 우륵이 작곡한 12곡 중에는 사자기(師子伎)라는 사자놀음이 있었다. 가야국 기실왕이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했는데 가야국이 난리나자 우륵은 신라 진흥왕에게 귀화하였다. 당시 우륵이 제작한 12곡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사, 사물, 물혜, 하기물, 사자기, 거열, 사팔혜, 이사, 상기물 등이다.¹³ 이 중 여덟 번째 곡에 사자기가 들었다. 이는 가야금 곡조만이 아니고 노래와 춤이 어울린 노래였으며 남제(南齊)에서 전래한 기악의 사자기로 해석된다.¹⁴ 아래 자료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산예 즉 사자놀음에 대한 최치원의 글과 근래 태백 본적사지에서 출토된 신라 때 사자문양 기와이다.

12 장정룡 외(1999).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 속초문화원. 59-60.

13 一然. 三國遺事. 卷第32. 樂誌 伽倻琴條

14 김동욱(1966). 우륵 십이곡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 1. 32.



〈사진 2〉 최치원의 글과 태백 본적사지 출토 유물

신라 말기 때 최치원(857~?)이 쓴 향악잡영(향악雜詠) 5수 가운데에도 산예(狻猊)라는 사자놀이 내용을 보면 “사막을 지나서 몇 만 리를 왔느냐(遠涉流沙萬里來), 털은 다 빠지고 먼지투성일세(毛衣破盡着塵埃).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며(搖頭掉尾順仁德) 사람 말은 잘 듣지만 역센 그 기운 짐승중의 왕이로다.(雄氣寧同百獸才)”라고 읊었다.¹⁵ 이 시에 나오는 유사는 사막의 명칭으로 서역일대 고비사막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자무가 인도에서 전래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속편』에서 산예는 “인도 특유의 동물의장 무로서 서역과 동방의 각국에 유행하게 된 유명한 무악(舞樂)이요, 그 여풍(餘風)이 한국, 일본 등에 지금도 남아 있다.”하였다.

산예는 위의 시 내용처럼 잡희의 내용이 선명한 북방계 사자희라 할 수 있다. 산예라는 사자무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중국의 연희시와 매우 흡사할 것으로 본다.¹⁶ 일반적으로 북방계 사자는 대나무 골조에다 종이를 발라 붙여서 사자모양을 만드는데 푸른 물감을 들인 대마나 칩껍질로 모양을 꾸미기 때문에 용맹스럽고 활발한 동작을 보여주며, 남방계 사자는 그림도구로 눈과 코입을 그려서 색실과 꿩꼬리, 짐승털로 아름답게 꾸민다. 삼국시대의 기록에 나무사자상이 보이고, 『삼국사기』 악지에서 ‘사자기’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처럼 〈향악잡영〉은 최치원이 당대에 창조 공연된 극놀이의 내용과 진행과

15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32. 志第一. 樂.

16 윤광봉(1987). 한국 연희시 연구. 서울: 이우출판사. 41.

정을 시적으로 매우 능숙하고 흥미롭게 그려냈다. 이런 측면에서 〈향악잡영〉은 신라말기 극예술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시인의 창작문예작품으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예의 사자춤은 중국의 오방사자나 구두(九頭)사자가 아니라 서량기(西涼伎)의 사자무로 보인다.¹⁷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시에 “奮迅毛衣擺雙耳(털옷을 흔들며 털고 두 귀를 흔들며), 如從流沙來萬里(마치 서역을 거쳐 만리길을 온 것 같구나)”라 하였듯이 산예의 사자놀음과 흡사한 형용을 보인다.

상기 우측 사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래 강원도 태백시 본적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양의 수막새는 강원도 지역에 사자가면의 전래를 추정케 한다. 특히 막새의 드림면 전체에 가득 차는 크기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된 좌상이고,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자문 막새가 출토된 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한다.¹⁸ 이 사자문양 막새는 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새긴 것으로 사자가 정면을 보고 있는 무서운 모습이다. 눈썹, 코, 입, 콧등, 수염, 갈기, 턱수염, 앞니 등이 잘 표현되어 신라 때 사자가면을 추측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산예라는 사자가면의 모습을 유추하려고 한다면 태백 본적사지 출토 사자문(獅子紋) 수막새는 벽사진경과 수호신적 의미를 가진 신수(神獸) 또는 영수(靈獸), 벽사수(辟邪獸)로 사찰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사자와 관련된 벽사신앙이 유입되었으며, 태백 본적사지의 사자문 막새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자춤은 우리나라와 중국나례(儺禮)에서 모두 발견된다. 고려 말에 이색(李穡, 1328~1396)의 〈구나행(驅儺行)〉은 나례에서 사자무가 추어진 사실을 전하는데 나례에 오방귀무와 백택무가 나온다. 구나행의 1구에서 14구까지는 12지신과 진자들이 역귀를 쫓는 의식이고, 15구에서 28구까지는 의식이 끝난 뒤 놀이패가 각종 잡희를 연행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오방귀무, 사자무, 서역의 호인희, 처용무, 불토하기, 칼삼키기, 인형극, 백수희 등의 놀이를 묘사한다. 15구와 16구는 “舞五方鬼踊白澤, 吐出回祿吞青萍”(오방귀신의 춤과 사자놀이를 하며 불을 뿜기도 하고, 칼을 삼키네)라고 하였다. 여기서 백택무가 신수(神獸) 또는 사자의 별칭으로 까마귀, 주지(사자), 비비탈과 같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대부분 나례에 등장하는 동물은 사자이고, 벽사적 동물로 사자가 등장하므로 우리나라에서

17 김학주(1994). 한중 두 나라의 가무와 잡희. 서울: 서울대 출판부. 93-94.

18 강원도문화재연구소/태백시(2003). 本寂寺址. 강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태백시. 128.

19 윤광봉(1987). 59. ; 윤광봉(1992). 한국 가면극의 형성과정: 나례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9. 97.

도 고려 말에 이미 나례에서 사자무가 연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탈놀이는 동해안 일대 북청사자놀음과 통천가면극, 서해안 일대의 봉산탈춤과 산대탈춤, 남해안일대의 수영야류와 통영오광대, 내륙지방의 양주소놀이굿과 하회별신굿으로 나뉜다.²⁰ 현존하는 가면극 가운데 대표적인 사자놀음은 동해안 지역의 북청이며 봉산·강령·은륜 등지 해서탈춤, 수영야유,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주지(사자) 등에서 사자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두현은 “중국민속 사자무와 비교하여 보건대 우리의 사자놀음은 북방계에 가까운 것이며 또 하회가면 속의 주지탈은 사자탈을 뜻하는 것인데 그 가면에 꿩꼬리[雉尾]를 꽂는 것은 사자의 갈기로서 사용한 것이며, 중국 남방계 사자에서도 그 예가 있음을 볼 때 주지탈은 사자탈임을 더욱 확증하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²¹라고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동해안지역의 사자놀이는 일정한 구성을 가졌으며, 극적 줄거리가 선명하다.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벽사적 기능을 갖는 구나형식(驅儺儀式)의 일환이라고 하겠으며, 이 가운데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이 나례의 구나형식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북청사자놀음은 정월 14일날 밤부터 16일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지신밟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례의 매귀(埋鬼)와 같은 성격이고, 방울소리를 울리거나 ‘딱딱’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귀신을 잡아먹는 시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물고 나와 마당에서 깨뜨리는 것도 엄중한 행위로 위협하여 귀신을 쫓는 것이다. 가면극의 중심에 사자가 등장하는 자체로도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자가 방울소리를 내고, 입을 여닫는 ‘딱딱’소리를 내는 것도 잡귀를 쫓는 나례의 구나형식과 유사하다.

북청사자놀이는 탈춤과 우스꽝스러운 재담으로서 양반 통치계급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극적 줄거리의 전개를 이룬다. 북청사자놀이에 나오는 성원은 사자(두 사람이 앞뒤에 서서 사자 가면을 쓴다) 이밖에 꼭쇠, 양반, 중, 점바치, 의생, 거사, 무동 등이다. 꼭쇠는 협상곳은 탈을 쓴다. 양반은 긴 수염이 달린 탈을 쓰고 머리에는 관을 쓰며 도포(옛날 보통 예복으로 입는 남자의 옷)를 입는다. 거사는 탈과 고깔을 쓴다. 사자놀이는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많이 놀았다. 놀이의 서막은 도청(이 지방에 고유한

20 권택무(2006). 조선 중세 민간극 문학. 평양: 평양출판사. 12.

21 이두현(1969). 한국가면극. 서울: 문화재관리국. 383.

마을의 공동 집회장소에서 벌어지는 마당놀이이다. 마을마다에서 마당놀이를 놓고 난 다음 아직 흥이 사라지지 않은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햇불을 앞세우고 여러 마을들로부터 사자행렬이 북청읍을 향해 모여든다. 그런 다음 읍내 큰 마당에서 사자놀이의 경연이 벌어진다. 사자닐리리의 신명나는 악곡이 일대 교향곡을 이루는 가운데서 사자춤이 오래 계속된다. 큰 마당에서의 경연이 끝나면 사자행렬은 각기 호별방문으로 넘어간다. 꼭쇠가 사자를 집 마당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돈 후 사자는 마당장단에 맞추어 넓두리춤을 추며 격조 높은 북장단에 검모루춤을 춘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부엌문으로부터 부엌간에 들어가 집안에 숨은 악귀를 몰아내는 시늉을 하면서 춤추고 돌아가다가 밖으로 나온다. 사자놀이에서 쌍 통소와 북으로 구성된 악대는 3장으로 편곡된 사자닐리리를 능숙하게 연주한다. 사자닐리리의 첫장은 심산유곡에서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하였고, 중간장에는 성낸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마지막장에서는 부정을 타승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훌륭히 형상한다. 사자놀이의 씩씩한 춤가락은 백수(百獸)의 왕으로 이르는 사자의 위풍 그대로이며 한없이 밝은 보름달빛을 받으면서 넓은 광장을 마음껏 뛰노는 사자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사자놀이는 무용이 주체로 되어 있으며 극적 형상은 약하나 거기에는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

1936년 2월 7일 송석하가 처음 북청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글을 남긴 이래,²³ 이두현,²⁴ 전경욱²⁵ 장정룡²⁶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북한에서는 김일출, 박종성, 장권표, 리순신, 최창호, 조대일, 권택무, 한태일 등의 연구가 있었다.²⁷

필자는 1991년 7월 16일 김수석(속초시 영랑동 8통 5반, 당시 84세), 김하륜(속초시 금호동 10통 1반, 당시 76세) 제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실질적인 면담 심층조사로서 북청동향친목계 계칙 및 계원명단을 찾았고, 이들이 북청사자놀음의 실질적 전승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월남이후 최초 제작된 북청사자탈을 김하륜 옹의 집에서 찾아

22 전장석(1964). 탈놀이. 조선의 민속놀이. 평양: 군중문화출판사. 22-23.

23 송석하(1960). 한국민속고. 서울: 일신사. 75-79.

24 이두현(1969). 381-393.

25 전경욱(1999). 북청 사자놀이연구. 서울: 태학사.

26 장정룡(1992).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 속초문화원.

27 북한지역 북청 사자놀음 연구 내용은 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속초문화원 발행) 참조.

내 사진촬영을 하여 원형복원에 기여하였다.²⁸ 이후 필자는 1957년 당시 장구와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 옹을 찾았고, 부친 변무성으로부터 통소와 양반역을 배운 변경일과 김철섭 제보자를 찾아서 전승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²⁹ 속초지역에 전승된 사자놀음의 본격 조사와 내용은 필자가 두 차례로 수행했고, 김수석, 김하륜 옹의 구술대본과 통소 녹음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속초 사자놀이의 놀이 내용과 가면

속초사자놀이는 사자춤을 중심으로 칼춤, 사당춤, 무동춤, 꼬새춤, 승무를 비롯하여 민요 애원성, 예구내딸 봉섬이, 마지막의 군무 등은 사자놀음을 보완하고 놀이판을 구성한다. 전래되는 놀이과장과 탈 등은 다음과 같다.

1) 놀이과장³⁰

- (㉠) 연희 시기: 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 (㉡) 연희 장소: 도청 마당, 각 가가호호 방문
- (㉢) 등장 인물: 약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 2인, 거사춤 2, 사당춤2, 칼춤2, 무동춤4, 꼬새춤2인
- (㉣) 가면: 양반, 꼭쇠, 사자탈(모두 종이탈)
- (㉤) 악기: 통소 3~4개, 팽과리, 장고, 북, 징
- (㉥) 소요시간: 40~50분(전체), 사자춤은 5~10분 정도
- (㉦) 연희내용: 벽사진경
- (㉧) 연희마당: [아홉 굿거리(춤)]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예구내딸 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열두 마당(내용)] ①양반꼭쇠의 해학마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꼬새춤 ⑥칼춤 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28 장정룡(1992). 198-216.

29 장정룡(2010). 44-47.

30 1950년대 속초지역에서 사자놀이를 하였던 김수석, 김하륜의 고증을 토대로 그 내용과 사자탈의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①풍자 ②군무

(x) 사자탈의 크기: 1958년 남한에서 최초로 만든 사자탈은 크기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 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 높이가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칠을 했으나 종이로 만들었으며 사자탈은 페그물을 색칠함.³¹

북청사자놀음을 기본으로 한 대표적인 놀이대본을 살펴보면 마당놀이와 사자놀이 마당으로 크게 두 마당으로 나뉜다. 이두현 채록본의 경우 제1과장: 애원성, 제2과장: 마당돌이-①마당돌이 ②사당춤 ③무동춤 ④뽕새춤, 제3과장: 사자춤-①사자춤 ②군무로 되어 있어서 애원성 과장이 따로 들어갔다.³²

다음으로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조규희 채록본은 제1애원성마당-①해학 ②애원성 ③사당춤 ④칼춤 ⑤무동춤 ⑥뽕새춤, 제2 사자놀이마당-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넋두리춤)으로 2마당 9과장으로 나누었다.

전경욱 채록본도 마당놀이마당과 사자놀이마당으로 나누었다. 마당놀이에는 ①마당돌이 과장 ②애원성춤과장 ③사당 거사춤과장 ④무동춤과장 ⑤넋두리춤과장 ⑥뽕새춤과장 ⑦칼춤과장 등 7개 과장이 있고, 사자놀이에는 ①사자춤 초장 ②사자춤 중장 ③사자춤 말장 ④마을돌이와 뒷풀이과장으로 모두 4과장으로 하였다.³³

박종성은 북청사자놀음이 하나의 완전한 독립적인 탈춤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첫부분은 느린춤부분이다. 이 지방에서는 느린춤부분의 장단을 ‘마당장단(굿거리장단)’이라고 하였고, 춤은 ‘넌놀이춤’이라고 한다. 이 춤에서는 사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부분은 ‘넋리장단(타령장단)’에 춤은 ‘넋두리춤’이다. 이 춤부분에서는 사자의 맹수로서의 날래고 용맹한 모습을 강조한다. 셋째부분은 ‘검모리장단(타령장단이 빨라진 것)’에 환희의 춤이다. 여기서는 사자가 마음껏 환희로운 기분을 형상하고 있다. ‘검모리춤’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에서 힘차고 약동적인 북장단에 재빠르고 박력있는 울동이 전개된다. 셋째부분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삽입된다. 한참 사자가 날떨 때 어린아이 하나가 춤판에 끼어든다. 사자가 큰 입을 벌리며 달려들

31 장정룡(1992). 214.

32 이두현(1969). 381-393.

33 전경욱(2001).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서울: 화산문화. 59.

어 아이를 삼킨다. 사자는 곧 체기를 받아 빙빙 돌다가 쓰러진다. 이때 사자를 끌고 다니던 마부가 침쟁이를 업고 들어온다. 침쟁이는 막대기만한 침으로 사자를 쿡쿡 찌른다. 사자가 살아나고 기쁨을 안고 춤을 추면 놀이꾼들 모두가 어울려 큰 춤판을 날이 썰 때까지 계속되는데, 개별적인 집들을 찾아다니면 놀기도 하였다. 이때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엌으로 해서 방안을 통과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집주인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사자가 그렇게 해야 묵은 해의 부정한 것이 다 물러간다는 지방의 옛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³⁴

권택무에 의해 정리된 북한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북청사자탈극’이라 부르며 북상리(대별)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대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³⁵ 과장은 제1도청과장, 제2길군악과장, 제3경연과장, 제4마을돌이과장, 제5마감과장 등 다섯과장으로 나누었으며, 나오는 탈은 사자탈, 꼭쇠(또는 꼭쇠), 양반, 중, 점바치, 의원, 굴중(상모)돌리는 사람, 소고 든 거사2명³⁶, 무동,³⁷ 아이(또는 기생) 등이다. 한태일의 대본은 사자탈춤중심으로 초장, 중장, 말장의 3개 춤마당으로 되어있다. 초장은 ‘사자닐리리’로 마당장단(굿거리장단)에 맞추는 ‘넘놀이춤’(느린동작의 춤), 중장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는 빠르고 격동적인 춤으로 사자의 웅장한 모습과 위엄을 보여주고, 말장은 사자가 기생을 삼키는 장면, 기생을 삼키고 체기받은 사자를 의원이 침을 놓아 소생시키는 장면 등 극적이야기를 보여준다.³⁸

속초지역의 전승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10과장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현행 속초사자놀이 전체 구성은 4과장 10마당이다. 이는 9굿거리 12마당을 고려하여 정리한 것으로 첫째는 길놀이이다. 그 순서는 깃발-햇불꾼-통소-장고-징-소고-꼭쇠-양반-무동-승무-꼭추(순서가 바뀌기도 함)이다. 북청사자놀음은 야간에 행해지는 특성을 살려서 길놀이 에 등꾼이 햇불을 들고 사령이 깃발을 들고 도청 앞으로 모여들자 애원성을 부른다. 마당 놀이에서는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고, 다음에 닛두리춤, 무동춤, 꼭새춤, 칼춤으로 여흥놀이를 마치면 본격적인 사자놀이가 진행된다. 여기서 사자춤 초중말장을 마치면 마지막 군무놀이에서는 출연자가 함께 군무를 추고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면서 끝낸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이는 타 지역과 달리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며 마치는 것이다.

속초사자놀이는 마당놀이와 사자놀이가 중심이나 그 앞에 길놀이와 그 끝에 군무놀이를

34 박종성(1991). 143.

35 권택무(2006). 86-91.

36 거사(乞士, 居士)는 유랑예술인집단인 사당패 가운데 남자를 이르는 말.

37 무동(舞童)은 걸립패라는 유랑예술인들의 집단에서 다른 출연자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아이.

38 한태일(2009). 사자탈춤. 조선예술, 10. 64-65.

넣어 놀이마당 구성상 체계성을 갖추었다. 전체 과장은 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길놀이
는 길군악 시작마당이며, 마지막 군무놀이는 마감마당과 같은 의미다. 속초사자놀이의
가면과 과장을 보면, 제1과장: 길놀이-①애원성, 제2과장: 마당놀이-②양반꼭쇠해학 ③넙
두리춤 ④무동춤 ⑤뽕새춤 ⑥칼춤, 제3과장: 사자놀이-⑦사자춤초장 ⑧중장 ⑨말장, 제4과
장: 군무놀이-⑩돈돌라리이다.

사자가면이 현재 전하는 것은 1936년 2월 7일 석남 송석하(宋錫夏, 1904~1948)가 북청현
지에서 촬영한 북청읍 사자와 토성리 사자가면이 있다. 송석하의 사자탈은 전체적으로 붉은
색 계통이며, 이마에는 검은색으로 길게 세 줄의 주름을 뺐으며, 양쪽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눈은 황금색을 칠하고 눈 주위를 깊게 파고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코는 콧마루
가 넓고 양쪽 콧구멍이 불룩하게 튀어 나왔다. 얼굴 양쪽에 사자 갈기를 흰색으로 치켜
그려서 무서운 형상이다. 이것은 사자놀음이 나례의 유풍을 간직하고 벽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탈의 색이나 모양이 사자가면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김일출이 1955년 겨울부터 1956년 여름까지 세 차례 북청지방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자가면 사진 자료가 전하고 있으며, 필자가 속초 현지에서 찾아낸 사자가면은 1957년
김수석, 김하륜 두 분이 속초에서 처음으로 페그물을 이용하여 사자모를 제작하고, 종이로
사자얼굴을 제작한 것이다. 속초사자가면은 김수석, 김하륜 제작의 사자가면을 원형으로
확정하고 이를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가면은 필자가 김하륜 씨의 집을 방문하여
창고에서 찾아냈으며, 김하륜 씨 타계 후 현재는 속초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강원도 내에 전승되는 사자모양은 강원도 태백시 본적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
양의 수막새다. 가장 주목되는 사자관련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기와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사자문 수막새로, 거의 완형
의 상태로 출토된 2점을 비롯한 총 4점의 유물 모두 동일 와범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전체
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약간 타원형의 막새 드림면
에 꼭차게 시문된 사자는 두 다리를 가슴 양옆으로 내린 좌상(坐像)으로 그 자세한 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자의 얼굴(지름 상하 6cm, 좌우 6cm)은 정면관(正面觀)으로,
눈은 눈동자 바깥쪽으로 두 줄의 선을 돌려 마치 동그랗게 부릅뜬 것처럼 보이며, 그
위로는 두툼고 짧은 눈썹을 배치하였다. 코는 양감있게 솟은 콧등과 그 사이의 콧구멍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인중에서 시작되는 두 줄의 수염은 유연한 곡선을 그리
며 양 볼로 뻗어 올라가 눈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감기는데 그 표현이 사자의 갈기와 비슷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룬다. 수염 아래에는 일자로 표현된 입술과 함께 3개의 앞니가 나란히 튀어나온 모습이다. 이러한 얼굴 주변에는 안쪽으로 감긴 고사리 모양의 턱수염 및 갈기가 돌아가고 있다. 또한 이마에는 긴 타원형의 귀가 양쪽으로 가지를 뻗었고, 그 사이는 Y자 모양의 장식으로 마감하였다. 얼굴 밑으로는 좌우 아래로 볼록하게 양감을 준 가슴이 얼굴 아래쪽을 감싸듯 표현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두 다리 사이로 다소 도식화된 모습의 배가 보이는데 안쪽으로는 희미하게 V자를 여러 겹 겹쳐 새겼다. 얼굴의 양 옆으로부터 뻗어내려 배의 양 옆으로 나란히 모은 다리는 바깥쪽의 두껍고 양감있는 선과 안쪽의 가늘고 유연하게 뻗은 가는 두 줄의 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다리의 근육과 힘줄을 연상시키고 있어 힘있게 느껴진다. 유난히 섬세하고 크게 강조하여 나타낸 발은 마치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6개의 발가락을 바깥 쪽으로 뻗고 있으며 뾰족한 발톱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막새 드림면의 가장자리 주연부 (폭:0.7~0.8cm 높이:0.5cm)에는 연자를 촘촘히 돌렸다. ... 본 유적에서 출토된 사자문 수막새를 종래의 출토 예와 비교해 볼 때, 사자의 갈기, 수염과 이빨, 양감있는 가슴과 힘이 느껴지는 다리 등 세부적인 요소의 표현 여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공통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수염과 다리, 발 등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기는 하나 경주지역의 일반적인 사자문 수막새보다는 얼굴의 세부가 다소 도식화되었고 평면적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막새의 드림면 전체에 가득차는 크기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된 좌상을 배치하였다는 점, 그리고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사자문 막새가 출토된 점 등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³⁹

김일출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각 마을의 사자가면들이 서로 다른 특색들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호랑이 또는 고양이 모습으로 된 것, 귀면 모양으로 된 것과 얼굴 전면에 용비늘을 그린 것 등이다. 속초사자놀음 가면의 형태는 김하륜 옹의 고증에 의하면 속초에서 만들어 보관하는 있는 사자가면에 대하여 “이게 본 사자거채입니다. ...우리사자 저기 진짜지”라고 증언하고 속초지역이 아닌 곳에서 만든 사자가면은 원형에서 벗어나고 음악도 달라졌음을 말하였다.⁴⁰ 필자 조사당시 김수석 옹의 증언도 그러하였다.⁴¹ 따라서 속초 전승

39 강원문화재연구소/태백시(2003). 126-128.

40 장정룡 조사: 1991년 7월 16일 김하륜(남. 76세, 속초시 금호동 10통1번)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거요. 지금도 망글어요. 만들기 힘이 들어요. 이게 질이 세 가지고 (통소) 구멍을 뚫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 여기선 무스할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삼년하고, 삼십년전 일이야. 한 삼년 놀아거든, 가서 저 사자가지고 가서 그래서 서울가서 한 삼년 대냈어요...그래 귀찮으니까 한 삼년 다니고 등록난

지에서 최초로 제작한 사자가면이 원형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방증된다. 현재 사용하는 속초 사자가면의 형태이다.

(1) ① 종이(과거에는 피나무 바탕에 조각하여 암수 한 쌍을 만들어서 썼다고 한다)

② 암수 한 쌍인데 수컷의 얼굴 윤곽은 전체적으로 둥그레하고 붉은색, 검은색, 황색 등으로 채색한다. 수염을 흰색을 칠하거나 납종이를 붙이고 눈썹을 검게 그리기도 한다. 몸에는 그물을 씌우고 그 그물에 황색, 흑색, 백색, 청색, 홍색 등 오색실을 매고 꼬리는 대나무에 오색실을 감아 붙인다. 눈은 금색을 칠하였으며 눈동자와 코는 검은색 바탕에 구멍만 뚫렸다. 암컷 사자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이마는 검은색 주름을 넣었고 눈은 흰색 눈동자에 검은색으로 그렸다. 코는 굽게 만들고 끝에 구멍을 뚫었다. 귀자리에는 방울을 달았다.

③ 높이 55cm 너비 넓은 곳이 48cm 좁은 곳이 37cm, 코높이 10cm, 눈동자 지름 5.5cm, 꼬리길이 86cm(손잡이 10cm), 몸 전체길이 200cm

④ 사자몸은 같은 오색실이 달린 바지와 신을 신고 사자머리와 사자 몸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

(2) 양반: ① 종이 ② 흰색 바탕에 검은색 눈썹과 수염을 달았다. 눈과 입이 뚫렸다.

③ 높이 30cm 너비 21cm 코길이 11cm, 코높이 4cm ④ 높은 정자관을 쓰는데 정자관에는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렸다. 옷은 흰색 도포를 입었으며 부채와 장죽(74cm)을 든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양반은 손에 담뱃대를 들고 부채를 들고 도포 관복을 입고, 탈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수염은 근사하게 길쭉하게 만든다고 한다.

(3) 꼭쇠(꼭쇠): ① 종이 ② 검은색 바탕에 수염을 검은색으로 길게 달았다. 눈과 입은 뚫렸다. ③ 높이 31cm 너비 20cm, 코높이 5cm ④ 빨간색 수술이 달린 전립을 쓰고 등과 어깨에 검은 빛깔이 들어간 갈색 옷을 입었고 허리에 붉은 천을 두른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

다음에 자기네... (이게)지금 노는 사자야, 틀이 지들이 맞지 않나 싶어 칠한 거야. 이게 본 사자 거채입니다. 그렇담 지금 서울학생들이 지금 말하는기 저 영감들이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기야. 지금 현재 영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자가 저게 진짜지,, 거 내 하도 무속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41 장정룡 조사: 1991년 7월 16일, 김수석(남, 1907년생. 속초시 영랑동 8통5반) “원래 여기서 만든 사자가 서울 올라가서, 서울서 올라오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사자를 올려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자 그 꼴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자기네까지 망글어 가지고 지금 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꼴을, 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이거서 망근 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친목회 김하륜이라고, 우리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사자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가리가 참 보기도 좋아요. 제가 만든기요. 거기 있습니다. 종이로, 종이를 붙인 거예요.”

는 “꼭쇠는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줄을 이렇게 매고 바지도 한쪽 가다리, 반팔을 빨건거나 검은 거하고 팔이때기 절반은 빨건거 하고 탈을 쓰고 짚신 신고 행전 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고 한다.

(4) 꼽추: ① 종이 ② 분홍색 바탕에 눈썹은 검은칠을 하고 붉은 입술이며, 눈과 입은 뚫렸다. ③ 높이 29cm 너비 20cm 코높이 3cm ④ 보통 여자 복색에 땡기머리를 한다.

(5) 칼춤꾼: ① 2인이 등장하며 가면은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칼을 들고 나와 춤을 춘다. ② 상의의 끝에는 검은색으로 선을 둘렀다.

(6) 무동 2인: ① 가면은 없이 고깔을 쓰고 소매와 어깨에 붉은 줄이 그어진 소매가 넓은 가사와 흰바지를 입는다.

(7) 악사: ① 흰색 바지저고리에 남색 쾌자를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었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 의하면 대부분이 고깔을 썼다고 한다. ② 고깔색은 흰색에 양쪽에 꽃을 달았다. ③ 통소는 5~6명이 등장하며 굽은 대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길이 65.5cm 지름 3.3cm 그밖에 장고 1, 소고 1, 북1, 징 1 등이 등장한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통소는 3~4, 큰북, 작은북, 장고 하나, 징 하나, 팽과리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3. 속초 사자놀이의 연희 내용

속초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사자희(獅子戲)가 전승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북청사자놀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속초 사자놀이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함경남도 피난민들에 의해 본격 시작되었다. 지난 1957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월남한 함경도민의 최초 정착, 최다 집거지인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사자후를 토했다. 북청출신으로 사자놀음 연희자인 김수석과 통소 연주자 김하륜 두 분을 중심으로 청호동에 거주하던 함경남도 도민 가운데 사자놀음을 보았거나 실제로 했던 실향민들이 중심되었다. 1958년 속초읍장의 도움으로 처음 속초 지역에 함경남도 도민들이 북청도청을 세우고 사자가면을 만들어서 매해 정월대보름날 연희를 시작하였다.

1957년 당시의 연희자들과 명단을 적시하면, 사자: 김수석(앞채, 애원성) 뒷채(오동술), 양반: 이종욱, 꼭쇠: 양계건, 사당춤: 박씨, 의원: 장남우, 승무: 김봉수, 총각: 김원사, 꼽추: 마유득, 도깨비: 김효환, 중국인: 이종호, 악사: 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경(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수 명이

참가하였다.

속초에는 1957년 당시 연희 때 장구를 쳤던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 씨가 있었으며, 당시에 통소를 붙였던 고 변무성 씨의 아들 변경일 씨가 당시 아버지에게 통소와 양반놀이를 배웠다고 한다. 현재도 속초사자놀이 전승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자놀이를 잘 기억하고 사자탈 제작에 참여한 김철섭 씨가 재현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속초사자놀이의 대본은 최초 북청도청을 만들고 김수석(1907~1997), 김하륜(1914~2008) 씨의 지도하에 연희하던 당시의 모습대로 재현하였다. 이들은 1959년 5월 2일 북청동 향친목계를 만들었으며 계원은 당시 북청사자놀음을 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북청동향친목회는 36명이야. 그때나 이때나 이 형님(김수석)이 제일 고령자시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사자를 저기 선조로 내려오는 공연문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든, 저 바닷가에 가면 고기 그물을 썩어서 내버리는 것을 골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바다에 씻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물을 들여 사자를 만든 겁니다. 그때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나 이 형님이 사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자 노는 걸 연습했지. 그래서 그 활동으로 모인 돈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야튼 음력설부터 보름날까지 계속 땡겨요. 그래 몇 날을 해 가지고 우리 고향의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이라 정초에 사자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잡신들이 다 쫓겨나고 만수무강하라고 빌고 다 그래서 집집마다 쌀노 노나주고 돈도 노누는 집이 있고, 그때 돈으로 삼백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한 천원내고 그럼 그걸 함께 모아 재산을 만들었어요.⁴²

당시 북청군민 28만 가운데 절반인 14만 명이 월남했으며, 속초에는 북청출신 3~4백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상기 계원가운데 북청사자놀이에 참가한 연희자중 최고령자는 앞서자의 김수석이 중심이 되었다. 사자 뒷채 오동술, 꼭쇠 양계건, 양반 이종욱, 곱추 마유득, 도깨비 김효환, 중국인 이종호, 통소 김하륜, 통소 이재섭, 장구 신겸. 북 마방섭, 징 이종준 등 12명이나 되므로 북청동향친목계는 사자놀이의 실질적 공연단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 36명이 북청도청을 만들어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매월 20일 월례회의를 하며 연예부, 장의부,

42 장정룡(1992). 207.

의식부 등이 있어 사자놀음과 장례행사 등을 주관했다.

사자놀음은 속초에 거주하던 앞서자 김수석 씨를 중심으로 1956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첫 출전을 하였다. 이후 1957년 본격적으로 속초지역에서 연희되었는데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속초에서 처음 공연하였다. 10일 동안 공연한 기금으로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 읍소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다. 이후 1960년 서울에서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하고 1964년부터 전수활동을 하였으며, 1966년 10월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이 사자놀음을 하고 이재섭, 김하륜이 통소로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았다.

사자놀이는 이듬해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으며 김수석 씨는 사자앞머리 기능보유자로 1970년 기예능보유자 제84호(본적: 함경남도, 주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구 18반, 주민등록번호: 140404-107507, 생년월일: 1907년 7월 19일)로 지정받았다. 이후에도 김수석 씨는 속초에 계속 거주하면서 사자놀음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속초사자놀음은 서서히 명맥이 끊기고 1982년 김수석 씨는 대학생들을 지도하여 축제 때 공연하였으며, 1981년 9월 설악동에서 가을맞이 새마을 대예술회를 마지막으로 전승이 중단되었다. 1985년 10월 10일 제20회 설악제 당시 서울의 북청사자놀음 공연단이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하였고, 1988년 음력 정월대보름날에는 속초지역에서 북청출신 10여명이 사자놀음을 구성하여 걸립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복원은 아니었다. 당시의 복색은 악사들이 모두 종이꽃을 한 개 단 고깔을 썼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1년 속초시의 노력으로 설악제 민속제때에 가장행렬로 참가하였으며, 단체구성이 안되어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보존회에서 공연하고 김수석 씨는 애원성만을 불렀다.

필자는 김수석 씨와 김하륜 씨를 1991년 7월 16일 속초 현지조사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에 두 분은 고령이었지만 사자춤을 성실하게 증언해 주었고, 통소를 직접 불었다. 당시 김수석 옴은 놀이내용과 탈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당춤, 뭉 칼춤, 뭉 꼬새춤, 애원성, 그 다음에 거기 사자놀이마당이요. 맨 마지막 사자춤이 끝나고 그때 사자가 놀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 그러구 승무하고 그러니 세 사람이 들어가 놀거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이십분 놔두고 다 들어간다이. 인원이 다 들어가서 한마당에 사자도 놓고 그 다음에 칼춤하나, 칼 춤추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몸뚱이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저기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꼭쇠, 양반 뭉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그때그때는 한마당에 들어가서 전부

어울리게 복잡하게 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서 나올 적에도 막 그리 쉽게서 순서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한바퀴 돌아요. 외출서서 말이요. 외출 서서 말이요. 한 줄로 서서 빙 돌거든요. 그래 이제 돌고서 거기 인제 존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요 옛날에 동네 부락에서 제일 나 먹은 사람을 존위라고 하거든요. 존위, 그래 그 존위가 맨 마지막에 무슨 잡병쫓구 있지요. 꼬추가 탈이 있고, 양반이 탈이 있고 그 다음에 꼭쇠, 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 수건 쓰는 것도 있고, 고깔쓰고...

옛날 옛날에 자손이 귀한 집 애들은 이제 사자를 태우거든, 태우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자탈이 사자탈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애기 기저귀에다 채우면 명이 길다 그래서 그런 건 많지요. 사자탈은 빨간 것, 흰 것, 노른 것, 밤색, 검정색 다섯 가지지 여섯 가지지 그래요.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때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다 있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그게 두 마당 아홉거리라고 그랬지요. 두 마당 아홉거리라는 게 두 마당인데 아홉가지가 나오는 기지, 애원성마당, 사자춤마당. 사자탈은 종이를 붙인 것이요.⁴³



<사진 3>
1991년 앞사자 김수석과 필자(左),
통소 부는 김하륜 사진(右)

43 장정룡(1999). 202-203.



〈사진 4〉 1957년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을 하고 난 후 연희자들 기념사진



〈사진 5〉 1957년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 장면

4. 속초 사자놀이의 연희 대본

1) 제1과장: 길놀이-①마당돌이와 애원성

길놀이를 일명 ‘마당돌이’라고도 하는데 북청 토성리에서는 사자놀이와 관원놀이가 합쳐져 연희되었다고 한다. 길놀이 때 사자놀이와 관원놀이 연희자들이 악기반주에 따라 행진했

는데 관원놀이를 하지 않지만 길놀이만 하는 마을도 있다. 길놀이를 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도청 앞마당에 통소가락이 울리면 모여서 놀았다고 한다. 이것을 입장곡이라고 하는데 행진은 햇불과 깃대가 앞을 서고 길잡이가 막대를 휘두르면서 장내를 정리한다. 다음에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여 사자놀이를 소개하고, 그 진행을 맡는데 꼭쇠는 양반의 하인이다. 길잡이는 길놀이의 한 형태라 하겠다. 길놀이에 부르는 애원성(哀怨聲)은 함남민요로 널리 불린다. 1957년 최초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을 공연할 당시에는 김수석 씨가 불렀다. 애원성은 “사자놀이 하기 전에 마을주민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애원성, 돈돌라리, 어랑타령 등의 민요를 단지 노래만 부르던 것인데, 월남한 이후에는 새로 춤을 만들어 공연하고 있다. 따라서 북청고유의 춤이 아닌 별난 것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⁴는 견해도 있으나 속초에서는 애원성이 북청사자놀음에 들어갔으며, 김수석 씨가 타계한 이후 전승되지 않고 있다. 현재 속초에서는 ‘뉘뚜리춤’을 추고 있다.

애원성은 함경도 북청, 해산, 갑산, 무산, 삼수 등에서 가장 많이 부른 민요로 개화기때 유랑의 길을 따라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구슬픈 노래라고도 하고, 북청지방에서는 대원군이 경북궁 중건할 때 노역에 종사하기 위해 떠난 남편을 이별하며 부른 아내의 노래라고도 한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쌈에 요 내 가슴 풀린다. 에헤”라고 부르는데 달 밝은 밤 옛 성의 폐허에 서있을 때, 통소를 손에 쥐고 먼저 한 곡을 불 때라든지, 목동이 석양녘에 집으로 향할 때, 굵이쳐 흐르는 두만강 뗏목을 탈 때도 불렀다고 한다. 김하륜 옹이 고증한 내용이다.

통소는 입장곡부터입니다. 그 다음이 애원성타령, 이 김하륜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등록난 할아버지가 변영호라. 지금 통소 못 붙어요. 이게 김수석 할아버지가 애원성타령한 거요. “에헤, 에헤 우수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쌈에 요내 가슴 풀린다. 에헤 해는 오늘 보면 내일 보는 것 임자는 오늘 보면 언제나 보는가. 에헤 태산에 붙는 불은 만백성이 끄고 요내 가슴에 붙은 불은 어느 누가 끌까 에헤” 이 가사가 의미가 있는기야. 그러구 사자놀이 “에구 내딸 봉섬이”란게 있어요. 그 봉섬이란 아가씨가 그 아가씨가 예뻐던 모양이지. 처음에 입장곡,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부르고 에구 내딸 봉섬아 불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불렀던 게 연풍대라는 기요. 이번에는 갈춤이 나와요. 갈춤 잘취요.(김하륜, 이하 김하륜, 김수석 옹 고증, 장정룡 조사 1991월 7월 16일)

44 전경욱(2001). 63.

2) 제2과장: 마당놀이-②양반꼭쇠해학 ③넙두리춤 ④무동춤 ⑤꼭새춤 ⑥칼춤

양반꼭쇠 해학은 양반과 그 하인 꼭쇠가 마당돌이에 등장하여 마지막 과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놀이판을 돌아다니면서 놀이내용을 소개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부른다. 양반과 꼭쇠는 말을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은 사자놀이이며 춤과 동작으로 일관된다. 넙두리춤은 북청지방 여성들의 춤으로 돈돌라리춤이라고도 한다. 이 춤은 양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며 추는 것이 특징이다. 손목을 돌리고 다리를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는 것이 보기에 좋다. 무동춤은 어린 아이를 무동 태워서 춤을 추게 하는데 대체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이 각각 무동을 올라간다. 무동춤이 끝나면 꼭새춤(일명 꼭추춤)을 춘다. 양반이 꼭쇠에게 꼭새춤을 부르라고 하며 가슴과 등에 형겼을 넣어 불룩 튀어나온 모습으로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꼭새가 한바탕 춤을 추고 들어가면 양쪽에서 두 명이 등장하여 중앙에 놓여 있는 칼을 들고 다양하게 칼춤을 춘다.

이번에는 칼춤이 나와요. 칼춤 잘취요. 처음에는 입장곡하고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그 다음에 에구내말 봉섬야, 그때 사당춤 추거든. 그거 하면서 꼭새춤추고, 칼춤은 맨 마지막에 하는기야. 그 다음에 또 연풍대 할적에 그때두 추는데, 여기도 춤추는 사람 서넛 있소. 우리 고향사람들이 옛날 할머이들이 옛날 머리쓰개 머리 수건을 이렇게쓰고 옛날 할머이들이 추는 겁니다. 마지막이 칼춤이 끝났소. (김하륜)

3) 제3과장: 사자놀이-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사자놀이는 초장, 중장, 말장으로 나누는데 초장은 사자가 몸푸는 과장이다. 좌우상하로 힘차게 돌리는데 ‘모래기친다’고 한다. 예전에는 사자몸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달지 않는다. 북청에서는 한 마리가 놀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두 마리가 나온다. 양평리에서는 사자춤 중장에게 사자먹이로 아이를 내놓았다. 사자가 아이를 먹고 체한 시늉을 하며 쓰러지면 의원이 나와서 침을 놓아 살려내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중이 나와 염불을 하고 그것이 효험이 없자 의원을 불러서 약과 침으로 사자를 살린다. 죽평리에서는 사자가 쓰러지면 점쟁이가 나와 병점을 치고 후에 중과 의원이 등장한다. 다시 살아난 사자는 중장의 마지막에 입사자춤을 추는데 앞채사람이 뒷채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 요즘은

아이 대신 토끼를 사자가 먹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일본악서의 하나인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보면 ‘신라박(新羅拍)’은 직립한 사자모양이다. 이것은 앞채 한 사람이 뒷채 사람 어깨 위에 올라앉은 직립한 사자로 안에 두 사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사자놀이무법(舞法)이 신라 이래의 것으로 오래된 것임을 추측케 한다. 중장은 사자가 옆드리고, 기고, 뛰고, 입 맞추고, 몸 털고, 머리를 좌우로 돌려 이도 잡고, 꼬리 흔들고, 몸을 굽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교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사자춤을 보여줄 때 승무가 들어와 춤을 춘다. 사자는 신나게 춤을 추다가 토끼를 먹고 쓰러진다. 대사가 염불해도 소용이 없자 의원이 들어와 침을 놓고 감로수를 먹여 소생시킨다. 사자가 소생하면 말장으로 들어가는데 승무가 다시 들어오고 거사도 들어와 원을 그리며 소고춤을 춘다.

이제 사자놀음하는데 초장, 중장, 말장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다 소리가 달라요. 음악이 달라요. 초장이 제일 늘지요. 뜨지요. 중장은 조금 더 빠르구 그 다음 말장에 가선 아주 빠르다이.(김하륜)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대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다 있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사자가 한창 놀다 거꾸러지믄 이제 토끼를 하나 가져다가 만든 토끼를 갖다 거 허기증이 있으니 거꾸러졌다하면 아제 의원을 찾는다 말이요. 꼭쇠에게 양반이 “의원을 찾아오라”고 말이요. 그래 의원이 와서 진맥하게 되면 이제 의원이 “뭘 먹였는가?”하면 그럼 양반이 있다가 “사자가 허기증이 나서 토끼를 먹였는데요.”하면 의원이 “아, 그럼 언쳤는데요.”그러거든. “언쳤다. 이거 침을 놔야 하겠다.” 그 다음에 침을 논다 말이야. 맨 마지막에 스님이 들어가서 염불하는기야. 그러면 사자가 살아나거든. (김수석)

4) 제4과장: 군무놀이-⑩돈돌라리

군무는 마지막 뒷풀이 마감마당이다. 집에 들어간 사자가 어린 아이를 등에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한다고 믿는다. 아이를 태운 사자는 한바탕 놀고 주인은 꼭쇠에게 쌀과 엽전을 주고 녀두리춤을 추자고 권한다. 마지막으로 모두 참가하는 군무가 이뤄진다. 이때 전 출연자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여성들이 등장하여 바가지장단을 치며 돈돌라리를 부른다.

봄철 강가에서 달래를 캐다가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강산에 리라 리라 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말뜻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불렀다고 한다.⁴⁵ 아래 사진은 2018년 3월 2일 정월대보름날 속초 청호동에서 펼쳐진 속초사자놀이 공연 모습이다.



〈사진 6〉 속초사자놀이 공연 1

45 장정룡(2014).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속초문화, 30 54-71.



〈사진 7〉 속초사자놀이 공연 2



〈사진 8〉 속초사자놀이 공연 3

5. 속초 사자놀이의 음악과 춤사위

속초사자놀이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통소가 여러 명 등장하여 연주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5명 이상이 부는데 10년 이상은 불어야 소리가 난다고 한다. 악기는 통소 이외에 북1~2, 장고1~2, 징1로 구성되며 초창기 속초에서는 팽과리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통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 통소는 애원성을 부를 때는 애조 띤 슬픈 가락으로 불고, 칼춤이나 냇두리춤을 출 때는 흥겹게 분다. 반주음악은 주로 3분박을 사용하는데 굿거리장

www.kci.go.kr

단이나 자진굿거리장단에 속한다.

사자춤 반주음악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첫장에는 심산유곡에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 중간장은 성낸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 선율, 마지막장은 부정을 물리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형상한다고 한다. 북청지역에서는 빠른 타령장단인 검모리장단(영풍장단, 도드라미) 이외에도 마당장단(굿거리장단), 날리리장단(승모장단, 타령장단) 등을 사용하고, 악기는 팽과리(팽매기)1, 새납1, 피리4, 통소4, 해금1, 소고1, 징1, 북1명 등이 등장한다.

속초사자놀이 춤사위는 애원성춤, 넋두리춤, 무동춤, 꼬추춤, 칼춤, 승무, 사자춤 등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넘놀이춤, 잣은넋두리춤(승모춤), 건모리춤을 춘다고 한다. 사자춤은 서서 모래치기, 앉아서 모래치기, 선모재비, 앉은 모재비, 앉은 쟁걸음모재비, 뽀뽀춤, 앞걸음, 뒷걸음질, 좌로 네박돌기, 우로 네박돌기, 바닥에 입대고 돌기, 바닥에 턱대고 돌기, 바닥에 엎드려돌기, 선자세로 허리구부러돌기, 쪼그려 앉아돌기, 똑바로 일어서서돌기, 이잡기, 입맞추기, 기지개켜기, 몸털기, 입사자만들기, 입사자에서 내리기, 쓰러졌다 일어나기, 먹이먹는 동작 등이 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짚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이 있다. 중장에서 꼭쇠가 앞장서서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사자가 쏜살같이 그 뒤를 따른다. 사자가 방을 거쳐 부엌까지 훑훑 돌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무서운 동작을 하다가 부엌에 놓아둔 바가지를 입에 물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동맹이 쳐 버린 다음 높이 솟았다 엎드렸다 하며, 두 마리의 사자가 빙빙 돌게 된다.

6. 맺음말

속초사자놀이는 전체 5과장 10마당으로 진행된다. 그 내용은 제1과장 길놀이는 ① 마당돌이와 애원성, 제2과장 마당놀이는 ② 양반꼭쇠해학 ③ 넋두리춤 ④ 무동춤 ⑤ 꼬새춤 ⑥ 칼춤, 제3과장 사자놀이는 ⑦ 사자춤 초장 ⑧ 중장 ⑨ 말장, 제4과장 군무놀이는 ⑩ 돈돌라리로 구성된다.

음악적 특징은 통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데, 대체로 5명 이상이 분다. 이외에도 북 1~2명, 장고 1~2명, 징1명의 악사로 구성된다. 통소는 애원성을 부를 때는 애조면 슬픈

가락으로 불고, 칼춤이나 냇두리춤을 출 때는 흥겹게 분다. 반주음악은 주로 3분박을 사용하는데 굿거리장단이나 자진굿거리장단에 속한다. 춤사위는 애원성춤, 냇두리춤, 무동춤, 꼬추춤, 칼춤, 승무, 사자춤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사자춤은 서서 모래치기, 앉아서 모래치기, 선모재비, 앉은 모재비, 앉은 잔걸음모재비, 뽕동작, 앞걸음, 뒷걸음질, 좌로 네박돌기, 우로 네박돌기, 바닥에 입대고 돌기, 바닥에 턱대고 돌기, 바닥에 엎드려돌기, 선자세로 허리구부러돌기, 쪼그려앉아돌기, 똑바로 일어서서돌기, 이잡기, 입맞추기, 기지개켜기, 몸털기, 입사자만들기, 입사자에서 내리기, 쓰러졌다 일어나기, 떡이먹는 동작 등이 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짚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이 있다.

속초 사자놀이는 남북 간의 중요한 문화적 연결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속초 청호동 아이마마을에서 전승된 사자놀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북한의 함경남도 북청지역에서 행해지던 사자놀이가 한국전쟁 이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에 의해서 전승이 이어지면서 남북한 문화적 소통이 현재화된 것이다. 사자놀이는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1세대 실향민들이 스스로를 ‘북청사람’에서 ‘북청에서 온 속초사람’이라고 규정하다가 실향민 2세대들이 자신들을 ‘속초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양상과 맞물려서 나타난다. 이 변화의 양상에는 실향민공동체의 자기 식별, 집단의 역사적 및 사회적 진화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지속적인 재창조, 공동체의 정체성과 무형유산의 연관성, 문화유산의 진정성, 무형문화유산과 인권의 상호 관계 등 무형문화유산의 주요 요인들이 내포돼 있다. 속초에서 전승되는 사자놀이는 살아있는 무형유산의 표현이자 남한과 북한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⁴⁶

한국의 탈춤이 2022년 12월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봉산탈춤 등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속초사자놀이 등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를 포함한 18개 종목의 한국탈춤이 22번째 세계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무형유산의 등재는 사자놀이의 세계화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46 배은석(2018). 속초 사자놀이: 북한 실향민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이행과 전승.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References]

- Bae, Eun-seok(2018). Sokcho Sajanoreum: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mong displaced communities from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 Jang, Jung-young & Kim, Mu-rim(1998). Sokcho Cheongho-dong-ui minsok-gwa eoneo [Folklore and language of Cheongho-dong, Sokcho]. Sokcho: Sokcho Culture Center.
- Jang, Jung-young(2007). Sokcho Bukcheong Sajanoreum. Sokcho Munhwa, 23.
- Jang, Jung-young(2010). Sokcho Bukcheong Sajanoreum jeonsung siltae josa bogoseo [Report on the current state of transmission of the Sokcho Bukcheong Lion Mask Play]. Sokcho: Sokcho Culture Center.
- Jang, Jung-young(2010). Sokcho silhyangmin munhwa-ui jeonsung-gwa changjojeok baljeon bangan [Transmission and creative development plans for the displaced people's culture in Sokcho]. Sokcho Munhwa, 26, 94-125.
- Jang, Jung-young(2014). Dondollari minyo-ui silsang-gwa jeonsungnon [Reality and transmission theory of the Dondollari folk song]. Sokcho Munhwa, 30, 54-71.
- Jang, Jung-young, et al(1999). Sokcho jiyek gujeon seolhwajip [Oral folktales of the Sokcho region]. Sokcho: Sokcho Culture Center. 59-60.
- Jeon, Kyung-wook(1999). Bukcheong Saja Nori yeongu [Study on the Bukcheong Lion Mask Play]. Seoul: Taehaksa.
- Jeon, Kyung-wook(2001). Jungyo Muhyeong Munhwajae No.15 Bukcheong Sajanoreum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5: Bukcheong Lion Mask Play]. Seoul: Hwasan Culture. 59.
- Joo, Sang-hoon(1990). Sokcho-ui jimyeong [Place names of Sokcho]. Sokcho: Sokcho Culture Center. 15-16.
- Kim, Il-chul(1958). Joseon minsok talnori yeongu [A study of Korean folk mask plays]. Pyongyang: Academy of Sciences Publishing House.
- Lee, Doo-hyun(1969). Hanguk gamyeonggeuk [Korean mask plays].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83.
- Murayama, Tomoshirō(村山智順)(1941). Chōsen no kyōdo goraku [Local entertainments of Korea]. Chōsen: Government-General of Korea.
- Song, Seok-ha(1960). Hanguk minsokgo [Studies on Korean folklore]. Seoul: Ilshin Publishing, 75-79.
- Yun, Gwang-bong(1987). Hanguk yeonhui-si yeongu [A study on Korean dramatic poetry]. Seoul: Iu Publishing, 41.

K-민속극으로서의 속초 사자놀이 연구: 기원과 전승 양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속초 사자놀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함경남도 실향민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K-민속극이다. 이 연구는 속초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전승된 사자놀이를 중심으로, 실향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방식, 그리고 남북한 간 문화적 연결 고리로서의 의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속초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사자놀이 공연 및 관련자 면담)를 병행하여 사자놀이의 구성, 전승 방식, 악기 및 음악 구조, 춤사위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5과장 10마당의 연행 구조와 악기 편성, 장단, 춤의 형태 등을 민속지적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결론 속초 사자놀이는 단순한 전통놀이를 넘어, 실향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남북한의 문화적 단절을 잇는 상징적 민속극으로 기능한다. 전승 과정에서 사자춤, 갈춤, 무동춤 등 다양한 춤사위와 굿거리장단 중심의 음악이 공동체 내에서 살아 숨 쉬며 계승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특정 지역을 넘어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속초 사자놀이, K-민속극, 무형문화유산, 실향민 문화, 남북한 문화연결, 사자춤, 전승 공동체, 청호동 아바이마을

이 논문은 2025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